

제 10 회 축산진흥대회 개최

10월 16일부터 3일간 수원에서

민 병 호
(월간양계 기자)

축산인들의 축산진흥의욕과 가축개량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축산물 증진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제10회 전국축산진흥대회가 농수산부 주최, 축협 중앙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도 수원 가축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영래과장(농수산부 축산과)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 마지막 날 기념식에는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김식 국회농수산분과위원장, 이득룡 축협중앙회장, 학계, 업계 양축가 등 2천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황영구회장(중축개량협회)의 심사 경과보고와 박종문농수산부장관의 치사, 이득룡회장(축협중앙회)의 대회사가 있었고, 김 식위원장(국회농수산분과)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축산 진흥산업 발전에 공로로 훈

포장을 부문별로 시행했다.

격년제로 10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는 전국단위의 유일한 축산행사로 전국가축품평회의 의의와 전통을 잇는 동시에, 이를 축산진흥을 위한 종합적 행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급속한 경제 성장에 의한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축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주곡위주의 식단에서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육류 소비식단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 축산물의 수요가 선진국수준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육류소비 증가는 생산을 앞질러 쇠고기를 수입하여야 하는 문제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실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축농가를 위시한 전체 축산인들은 축산물 증산을 위해 보다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가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개

최된 이번 축산진흥대회는 사회적 현실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우량종축의 선발 활용과 우량종축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가축개량을 위하여 열린 가축품평회에서는 한우부문에 종모우, 후보종모우, 육성비육우, 종빈우, 암송아지, 숫송아지, 젓소부문은 경산우, 미경선 1부·2부, 돼지부문은 햄프셔 종모돈, 종빈돈, 요크셔 종모돈, 종빈돈에 대한 선발을 실시했는데, 도 단위대회에서 입선한 56마리의 한우를 비롯, 젓소 24마리 돼지 32마리 등 모두 1백 12마리가 출품되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량종축을 선발하였다.

또한 가축개량 및 축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홍보전시물, 가공품과 가축약품, 사료, 각종 축산기자재 등이 선보여 양축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켰다.



축산진흥대회는 지난 1969년 도에 최초로 개최한바 당시 전국가축품평회 공식명칭이 '제1회 전국 한우참피온대회'로 이때에는 한우만을 출품대상으로 하여 종모우, 종빈우, 비육우 등 3개부문에 개최되었었다. 2회대회부터는 공식명칭을 전국가축품평회로 변경하는 동시에 대회를 거듭하면서 한우의 후보 종모부문, 젓소(경산우, 미경산우)부문, 종돈(종모돈, 종빈돈)및 육돈부문 등을 신설하는 등 오늘날과 같이 출품부문이 확대되었으며, 한우부문중 「애버딘 앵거스」와 한우와의 교잡우 등이 출품된 비육우 부문은 한해만 실시하였다가 의의가 없어 그후 제외되었다.

금년도 제10회대회에서는 한우참피온에 체중7백90kg짜리 생후 2년 10개월된 황소가 차지(축주: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서달웅, 이영자부부)한 바 있으며, 축산진흥에 공이 큰 유공자에게 훈장5, 포장3, 대통령표창7, 국무총리표창7, 농수산부장관표창55 등 77명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이번 대

회는 축산인 최대의 잔치로 많은 축산인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일반인들의 관심이 거의 없어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번째 일반농가의 참여도가 적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민간주도형으로 행사가 운영되어 진흥대회기간중에 가축의 개량, 질병, 사양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양축가들의 호응도를 높이고, 사료,약품, 기자재업체의 많은 참여로 새로운 정보제공도 큰 몫을 해주고 있다.

한우, 양돈의 경우 점진적으로 개량이 잘되고 있다는 것은 집약적이지만 행사 시설의 낙후로 젓소의 경우 착유시설 미비로 좋은 능력의 유우는 출품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둘째, 심사위원의 자질향상이다. 심사위원은 농수산부 관계관에 의해 선정되지만 육종가들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의견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도단위의 우승제도 등으로 편차적인 심사의 우려를 낳고 가축개량의 목적보다는 도의 명예와 상금에만 눈독을 들여

본래의 목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셋째로 양계부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많은 양계인들의 빈축을 샀는데, 국내 축산업중 가장 먼저 산업화되어 사양기술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는 양계업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여 차기대회에는 꼭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네째, 홍보가 미흡한 점이다. 현대는 광고가 상품을 만드는 시대이고 보면 금번 축산진흥대회 홍보는 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축가 뿐만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축산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홍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위와같이 몇가지 지적했듯이 범국민적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고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축산진흥대회로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가축개량산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